

VIP REPORT



■ 동북아 역내 교역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동북아 역내 교역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동북아 역내 교역의 변화 3

3.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구조의 변화 5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11

【별첨 1】 한·중·일간 상호 교역 지위의 변화 14

【별첨 2】 한·중·일간 역내 품목별 수출입 규모 16

■ **HRI 경제 지표** 17

1. 개요

(분석 배경) 거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동북아 경제권의 교역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국, 일본이 모두 제조업 강국이면서 수출에 성장을 의존하는 가운데 비슷한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은 물론 역내 교역 구조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직전인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동북아 역내 교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한·중·일 3국 제품의 세계 교역시장 점유율 변화) 한·중·일 3국 제품의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수입시장에서 3국 제품의 점유율은 1990년 12.4%(3국 총수출 4,186억 달러)에서 2008년에 16.4%(2조 6,393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별로는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990년 2.0%에서 2008년에 2.7%로 소폭 상승한 반면,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8.9%로 급등하여 일본 제품의 점유율(4.9%)을 크게 앞서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 한·중·일 3국간 역내 교역 비중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국간 역내 수출은 1990년 48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5,24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3국간 역내 수출이 3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08년에는 19.9%까지 높아져 있다. 다만, 2004년(22.3%) 이후 역내 수출 비중은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동북아 역내 교역의 변화

동북아 역내 교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 역내 교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다. 2008년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산 제품보다 크게 높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 교역시장(한·중·일간 수출입의 합)에서는 일본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4%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36.8%)과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22.8%)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시장에서 한·중간 교역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한·일간 의존성은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현재 동북아 시장에서 한·중간 교역액은 한·일간 교역액의 약 두 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한·중간 교역액(313억 달러)이 한·일간 교역액(52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8년에는 한·중간 교역액(1,683억 달러)이 한·일간 교역액(893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2008년 현재 중·일간 교역액이 2,670억 달러로 동북아 양자간 교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의 대 중국 무역 흑자폭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대 일본 무역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0년 57억 달러에서 2005년 233억 달러로 확대된 적도 있으나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08년 현재 145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08년 32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동북아 역내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 역내 교역에서 얻어가는 무역흑자는 2000년 112억 달러에서 2008년 67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은 역내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폭은 2000년 5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49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 역내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폭은 2000년 57억 달러에서 2008년 182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무역에서는 이익(무역흑자)을 보고 있지만, 그 흑자폭이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폭을 하회하여 역내 전체 교역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3.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구조의 변화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구조의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중화학 공업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2000년 만해도 역내 수출중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2000년 44.0%로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 39.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경공업 제품 비중이 25.2%, 중화학공업 제품 비중이 61.9%에 달하고 있다.

둘째, 과거 일본이 강점을 보이던 기계장비 및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 수출에서 전기전자 및 기계장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각각 23.7% 및 2.9%)에서 2007년 39.5%(33.2% 및 6.3%)로 높아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5.2%(각각 30.0% 및 5.2%)에서 51.3%(43.7% 및 7.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일본의 전기전자 및 기계장비 품목의 수출 비중은 54.9%(각각 38.2% 및 16.7%)에서 46.5%(30.5% 및 16.0%)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부품소재 산업에서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4.1%에서 2007년에 89.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81.3%에서 73.1%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부품소재가 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2.9%에서 2007년에 34.7%로 높아졌으나, 한국과 일본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에서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높은 원인은 부품소재의 역내 경쟁력이 높은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중국 현지 진출 기업으로의 부품 및 반제품 수출 확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기술 수준별로는 3국이 모두 중기술(Middle-Tech) 제품 중심이 되었다. OECD의 양자간 무역 통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제품에 대한 국가별 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중기술 제품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2000년에 비해 2007년의 중기술 제품 수출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00년 저기술 제품 비중이 49.1%로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중기술 제품 비중이 38.8%를 기록하며 중국의 역내 수출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시사점) 중국 경제의 부상이 동북아 역내 교역 구조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수출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저부가가치 수출 산업 구조를 탈피한 지 오래이다. 또한 역내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술이나 품질도 한국 및 일본산 제품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동북아 시장 규모나 역내 교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내 교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밀린다는 것은 미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 방안) 역내에서 중국,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미래 동북아 시장 확보와 교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첫째,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산 제품의 역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북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공략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 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산업계와의 민관 교류 확대, 대기업·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 사이에서 한국 제품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 소재, 부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한·중·일 간 교역에서 중국 제품의 기술 수준이 국내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우리나라의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지속적인 역내 경쟁력 우위를 가지려면 독자적인 기술, 부품, 소재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핵심 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원 강화,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사업'의 규모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수출산업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수출산업고도화 전략을 통해 역내 중간재를 공급하는 하청 국가, 또는 OEM 방식의 역할에서도 벗어나 이제는 한국과 일본 제품의 수준과 대등한 위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이 살아남는 방법은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창의적 제품과 새로운 수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실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경공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떨어지지만 디자인, 소재 등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육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녹색 경제'가 이슈가 되어 교역품에 대한 환경 측면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들의 추적이 어려운 고효율·고기능성 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수출 산업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초기술의 도입·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확대, 우수 제품에 대한 중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박람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 개요

○ 한·중·일 3국 교역의 세계 비중 변화

- 한·중·일 3국의 수출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세계 수출 시장 규모는 1990년 3조 3,832억 달러에서 2008년 16조 696억 달러로 4.7배 증가
 - 한·중·일 3국 수출 규모는 세계 수출 시장 규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 4,186억 달러에서 2008년 2조 6,393억 달러로 6.3배 증가
 -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4%에서 2008년 16.4%에 이르고 있음

- 세계 수출 시장에서 3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은 소폭 상승, 중국은 상승, 일본은 하락하는 추세
 - 한국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1990년 2.0%에서 1995년에 2.6%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최근까지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냄
 - 중국 수출 제품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에서 2000년 3.9%로 상승하였으며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상승세가 빨라져 2008년에는 8.9%에 이르고 있음
 - 일본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1990년 현재 중국 제품의 점유율 수준과 비슷한 8.5%에 달하였으나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4.9%에 그치고 있음

< 한·중·일의 수출액 및 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추이 (억 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08
세계 수출시장 규모 (A)	33,832	50,832	63,880	103,690	160,696
3국의 총수출액 (B)	4,186	7,239	9,005	16,433	26,393
한 국	678	1,314	1,727	2,855	4,268

	중 국	628	1,490	2,492	7,626	14,293
	일 본	2,880	4,435	4,785	5,951	7,831
3국의 세계시장점유율 (B/A)		12.4%	14.2%	14.1%	15.8%	16.4%
	한 국	2.0%	2.6%	2.7%	2.8%	2.7%
	중 국	1.9%	2.9%	3.9%	7.4%	8.9%
	일 본	8.5%	8.7%	7.5%	5.7%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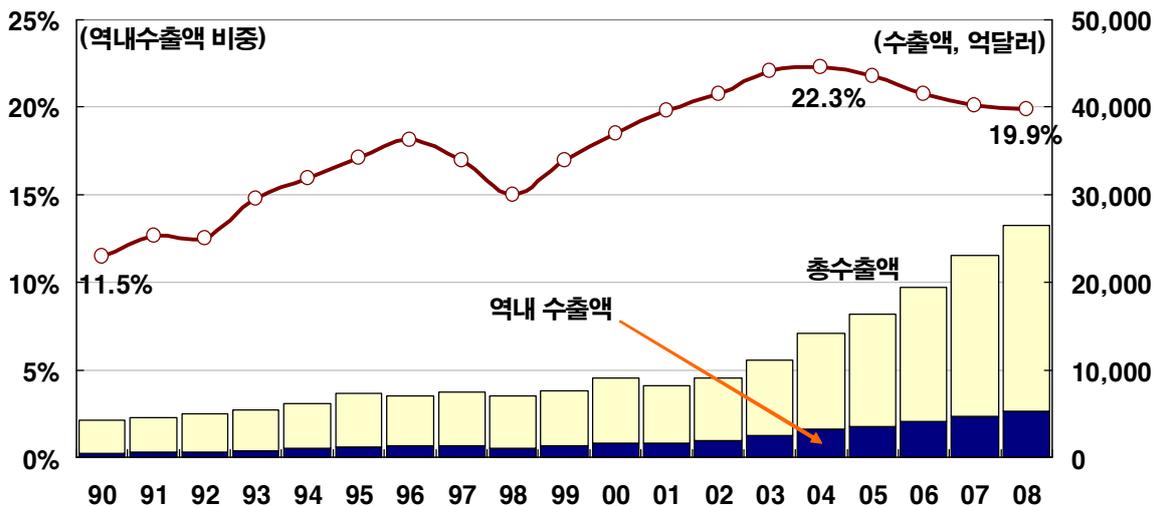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IMF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동북아 역내 교역의 변화

- 한·중·일 3국간 역내 교역 비중은 수출을 기준으로 1990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4년 이후 하락하는 모습

- 한·중·일 3국간 역내 수출은 1990년 48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1,0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2008년에는 5,246억 달러로 증가세를 지속중
- 한·중·일 3국간 역내 수출이 3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04년 한 때 22.3%로 증가
- 그러나 2004년 이후 역내 수출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08년에는 19.9%에 그치고 있음

< 한·중·일의 역내수출 비중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IMF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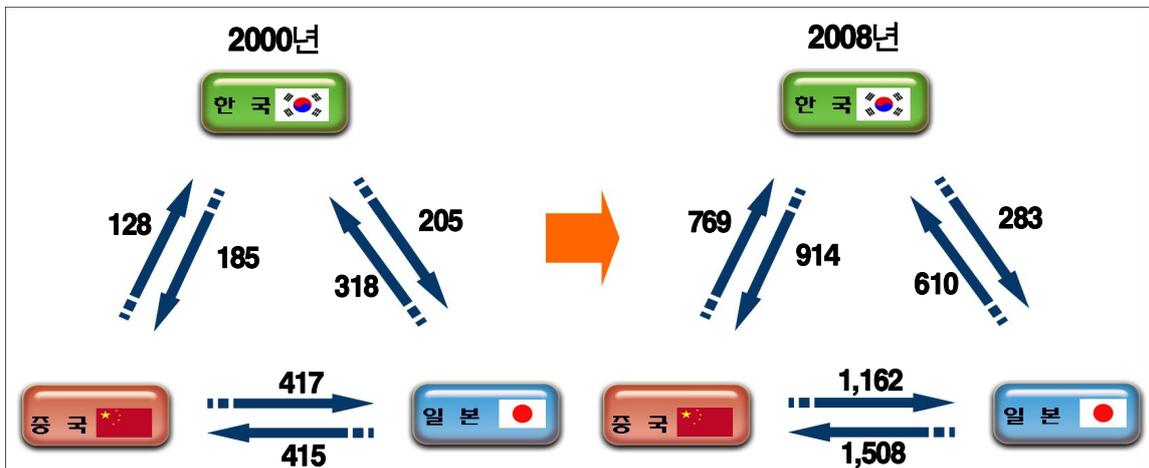
2. 동북아 역내 교역의 변화

○ 한·중·일간 총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화

- 동북아 교역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나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이에 근접

- 동북아 교역시장 규모(한·중·일간 수출입의 합)는 2000년 1,668억 달러에서 2008년 5,246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함
- 일본산 제품이 동북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3.9% (일본의 대 중국 및 대 한국 수출액의 합 733억 달러)에서 2008년 40.4% (2,118억 달러)로 하락함
- 중국산 제품이 동북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2.7% (545억 달러)에서 2008년 현재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36.8% (1,931억 달러)를 기록
- 한편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23.4%(390억 달러)에서 2008년에 22.8% (1,197억 달러)로 하락함

< 한·중·일간 수출입 규모 변화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 동북아 시장에서 한·중간 교역액은 한·일간 교역액의 약 두 배 수준

- 한·중간 교역액(수출입의 합)은 2000년 313억 달러에서 2008년 1,683억 달러

- 로 5.4배가 증가함
 - 한·일간 교역액은 2000년 523억 달러에서 2008년 893억 달러로 1.7배가 증가하는 데에 그침
 - 중·일간 교역액은 2000년 832억 달러에서 2008년 2,670억 달러로 3.2배가 증가함
 - 2000년 한·일간 교역액이 한·중간 교역액을 상회하였으나 2008년에는 한·중간 교역액이 더 많은 상황임
- 한국의 대 중국 무역 흑자폭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대 일본 무역 적자폭은 확대되는 모습
-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0년 57억 달러에서 2005년 23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08년 현재 145억 달러에 그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08년 327억 달러로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 한·중·일 양자간 무역수지 규모 변화(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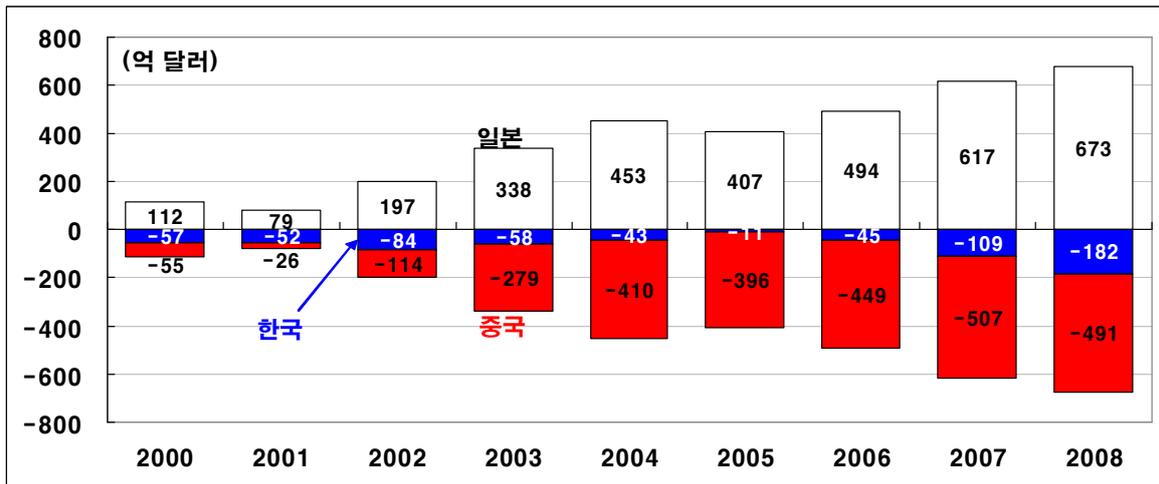
무역수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 중국	57	49	64	132	202	233	209	190	145
한국 → 일본	△114	△101	△147	△190	△244	△244	△254	△299	△327
중국 → 일본	1	23	△50	△147	△209	△164	△240	△318	△346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 한국은 동북아 3국의 역내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
- 동북아 시장 전체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폭이 일본에 대한 적자폭을 크게 하회하여 동북아 교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동북아 시장 전체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0년 57억 달러 적자에서 2008년 182억 달러 적자를 확대됨
 - 중국은 동북아 교역시장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이며 시장 전체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0년 55억 달러 적자에서 2008년에 491억 달러 적자로 크게 확대됨

- 반면 일본은 동북아 시장에서 2008년 현재 673억 달러의 흑자폭을 기록하고 있음

< 한·중·일의 동북아 역내 교역에서의 3자간 무역수지 변화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3.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구조의 변화

○ 수출 산업(공업)구조별 변화

- 동북아 역내에서 원자재 순수출국인 중국의 원자재 수출 비중은 하락
 -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원자재 수출액은 2000년 약 59억 달러에서 2007년에 76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침
 - 중국의 역내 총수출액 대비 원자재 수출액의 비중은 2000년 8.7%에서 2007년 4.0%로 하락함
 - 수출 대상 국가별로는 한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은 2000년 21억 달러에서 2007년에 39억 달러로 소폭 증가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서 6.3%로 하락)
 - 일본에 대한 원자재 수출은 2000년 38억 달러에서 2007년 36억 달러로 하락함 (중국의 대 일본 수출 대비 원자재 수출 비중도 7.0%에서 2.8%로 하락)

- 한·중간 경공업 제품의 무역수지는 한국을 기준으로 2000년 2억 달러 흑자에서 2007년에 73억 달러 적자로 전환
 - 2000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공업 제품 수출은 약 36억 달러,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약 33억 달러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 2억 달러 흑자를 기록
 - 그러나 2007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공업 제품 수출은 약 38억 달러에 그친 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공업 제품 수출은 약 96억 달러로 급증함
 - 중국의 일본에 대한 경공업 제품의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234억 달러에서 342억 달러로 증가함

- 중국의 역내 수출산업 구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
 - 중국 역내 총수출액 대비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액의 비중은 2000년 39.6% (< 경공업 비중 44.0%)에서 2007년 61.9%(> 경공업 비중 25.2%)로 급증함
 - 2007년 한국의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액 비중은 92.4%로 한국의 역내 전체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역내 수출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8.1%에서 2007년 86.8%로 하락함¹⁾

< 한·중·일 3국의 역내 총수출 대비 공업구조별 수출 비중 변화 >

	2000			2007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원자재	1.8%	8.7%	0.3%	0.5%	4.0%	0.3%
경공업제품	17.4%	44.0%	6.6%	5.1%	25.2%	3.2%
중화학공업제품	78.0%	39.6%	88.1%	92.4%	61.9%	86.8%
기타	2.8%	7.7%	4.9%	2.0%	9.0%	9.7%

자료: OECD 양자간 무역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1) 일본의 2000~2007년 기간 동안 원자재, 경공업 제품, 중화학 공업 제품이 일본의 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타 제조업 및 재활용 산업 제품, SCRAP METALS 등의 수출 비중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품목별 수출 비중 변화

- 중국의 역내 수출에서 전기전자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 장비, 화학, 철강 등의 다른 중화학공업 제품들의 수출 비중도 증가
 -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섬유 의류 제품이 중국의 전체 역내 수출의 33.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그러나 2007년의 경우 전기전자(33.2%)의 비중이 섬유 의류(18.7%)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한국의 역내 수출에서는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역내 수출이 빠르게 증가
 - 한국의 경우 섬유 의류, 철강, 화학 등의 품목들이 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
 - 반면 전기전자(30.0%→43.7%), 기계장비(5.2%→7.6%), 자동차(1.0%→3.4%) 등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 일본의 역내 수출에서 철강, 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일본의 경우 철강(7.7%→8.5%), 화학(17.5%→20.0%), 자동차(3.6%→6.0%) 등의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의 수출 비중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중·일 3국의 역내 총수출 대비 품목별 수출 비중 변화 >

	2000			2007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섬유 의류	12.3%	33.4%	4.8%	3.4%	18.7%	2.0%
철강	6.4%	2.1%	7.7%	5.0%	5.5%	8.5%
화학	31.2%	6.7%	17.5%	27.3%	9.1%	20.0%
기계장비	5.2%	2.9%	16.7%	7.6%	6.3%	16.0%
전기전자	30.0%	23.7%	38.2%	43.7%	33.2%	30.5%
자동차	1.0%	0.4%	3.6%	3.4%	1.3%	6.0%
선박	0.0%	0.1%	0.1%	0.1%	0.1%	0.7%
기타	14.0%	30.8%	11.3%	9.4%	25.7%	16.4%

자료: OECD 양자간 무역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참고】 역내 ICT 제품(중화학공업의 하위 분류)의 수출 비중 변화

- 중국의 역내 수출에서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
 - 중국의 역내 수출에서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4.7%에서 2007년 23.3%로 7년 사이에 8.6%p가 상승함
- 한국의 역내 수출중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상승
 - 한국의 역내 수출에서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8%에서 2007년 28.3%로 소폭 상승하는 데에 그침
- 일본의 경우 역내 수출중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
 - 일본의 역내 수출에서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0%에서 2007년에 20.0%로 크게 비중이 축소됨
- 역내 교역에서 한국산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
 - 2007년을 기준으로 역내 교역에서 한국산 ICT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8.3%로 중국(41.1%), 일본(30.6%)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한국은 역내 교역에서 ICT 제품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
 - 한국 ICT 제품의 역내 무역수지는 2000년 15억 달러 적자에서 2007년 74억 달러 흑자로 전환됨

< 역내 ICT 제품 교역에서의 비중 및 무역수지 >

	자국의 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역수지(억 달러)	
	2000	2007	2000	2007	2000	2007
한 국	26.8%	28.3%	28.5%	28.3%	△15	74
중 국	14.7%	23.3%	27.3%	41.1%	△4	△32
일 본	26.0%	20.0%	44.2%	30.6%	1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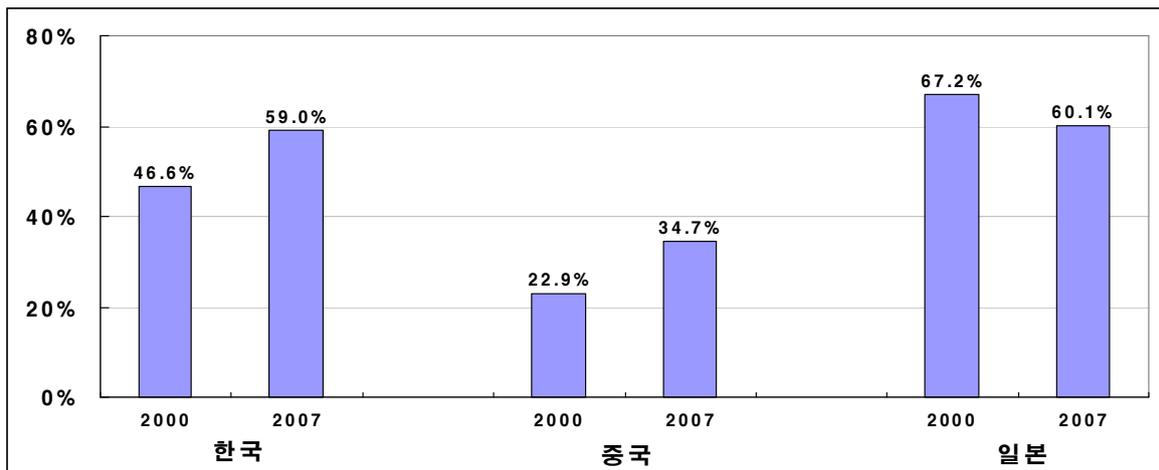
자료: OECD 양자간 무역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ICT 제품의 기준은 OECD 양자간 무역통계상의 정의를 따랐으며, 이에는 전선 및 케이블,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음향·방송·통신장비, 전자 밸브 및 튜브와 기타 부속품, 산업용 공정제어기기가 해당됨.

○ 부품소재 수출 비중 변화

- 한국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급등
 - 한국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4.1%에서 2007년에 89.6%로 크게 증가함
- 반면 일본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하락
 -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2000년 81.3%에서 2007년 73.1%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완성품 중심이었던 중국의 수출 구조에서 부품소재 비중이 상승
 - 중국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2.9%에서 2007년에 34.7%로 높아짐
- 단, 우리나라의 역내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높은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릴 수는 없음
 -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에서 부품소재 비중이 높은 원인은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은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중국 현지 진출 기업으로의 부품 및 반제품 수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

< 한·중·일 3국의 역내 총수출 대비 부품·소재 수출 비중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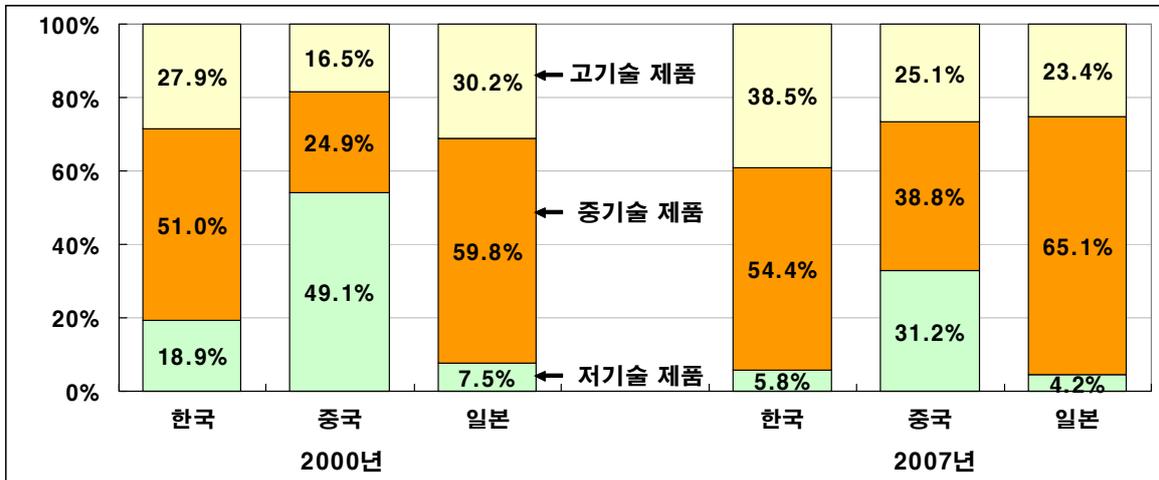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OECD양자간무역통계, PMSD 부품소재통계정보.

주: 각국 부품소재무역통계를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국가간 비중 차이는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음.

○ 기술수준별 수출 비중 변화

- 기술 수준별로는 3국이 모두 중기술(Middle-Tech) 제품 중심으로 변화
 - 한국의 역내 수출중 고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7.9%에서 2007년 38.5%로 증가함
 - 중국의 역내 총수출중에서 고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5%에서 2007년 25.1%로 증가함
 - 반면 일본의 역내 총수출중에서 고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0.2%에서 23.4%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이에 따라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자국의 역내 총수출중 고기술 제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남
 - 한편 중기술 제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자국의 역내 총수출중 65.1%)이며, 저기술 제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자국의 역내 총수출중 31.2%)으로 나타남

< 자국 역내 총수출에서 저·중·고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



자료: OECD 양자간 무역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주: 1) 저·중·고기술 제품의 기준은 OECD 양자간 무역통계상의 정의를 따랐으며, 고기술제품은 제약, 사무·회계·컴퓨터 기기, 음향·방송·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 기기, 비행기·우주선이 해당됨
- 2) 총수출에 대한 비중이며 원자재 수출 비중은 제외되어 표현됨.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

- 중국 경제의 부상이 동북아 역내 교역 구조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중국은 수출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경공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제품, ICT제품 등의 산업으로 수출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
 - 또한 역내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술이나 품질도 한국 및 일본산 제품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앞으로 동북아 시장 규모나 역내 교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내 교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밀린다는 것은 미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첫째,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산 제품의 역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북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공략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 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중국 산업계와의 민관 교류 확대, 대기업·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둘째,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 사이에서 한국 제품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 소재, 부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 한·중·일간 교역에서 중국 제품의 기술 수준이 국내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우리나라의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지속적인 역내 경쟁력 우위를 가지려면 독자적인 기술, 부품, 소재의 확보가 절실함
- 이를 위해서는 원천·핵심 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원 강화,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사업'의 규모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셋째, 중국의 수출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출산업고도화 전략을 통해 역내 중간재를 공급하는 하청 국가, 또는 OEM 방식의 역할에서도 벗어나 이제는 한국과 일본 제품의 수준과 대등한 위치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산 제품이 살아남는 방법은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창의적 제품과 새로운 수출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측면은 물론 디자인,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확대되어야 함

- 특히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실효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넷째,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경공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떨어지지만 디자인, 소재 등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육성은 지속되어야 함

- 특히 최근 '녹색 경제'가 이슈가 되어 교역품에 대한 환경 측면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개도국들의 추격이 어려운 고효율·고기능성 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수출산업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초기술의 도입·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확대, 우수 제품에 대한 중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박람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HRI**

【별첨 1】 한·중·일간 상호 교역 지위의 변화

- 한국에서의 일본의 교역 지위는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중국의 교역 지위는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00년 10.7%(교역상대국중 비중 3위)에서 2009년 1~9월중 23.5%(1위)로 상승함
 - 또한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8.0%(3위)에서 2009년 1~9월중 17.0%(1위)로 상승함
 - 반면 한국에서 일본의 교역 지위는 수출의 경우 2000년 11.9%에서 2009년 1~9월중 6.0%로 하락함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 >

		2000	2005	2008	2009 1~9
수출	미국	21.8% (1위)	14.5% (2위)	11.0% (2위)	10.6% (2위)
	중국	10.7% (3위)	21.8% (1위)	21.7% (1위)	23.5% (1위)
	일본	11.9% (2위)	8.4% (3위)	6.7% (3위)	6.0% (3위)
수입	미국	18.2% (2위)	11.7% (3위)	8.8% (3위)	9.0% (3위)
	중국	8.0% (3위)	14.8% (2위)	17.7% (1위)	17.0% (1위)
	일본	19.8% (1위)	18.5% (1위)	14.0% (2위)	15.3% (2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 안은 수출 및 수입 상대국중 순위.

- 중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
 -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 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7%에서 2009년 1~9월중 8.2%로 하락함
 - 중국에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4%대 중반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입의 2009년 1~9월 현재 1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0.2%로 2위를 기록중

<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 >

		2000	2005	2008	2009 1~9
수출	미국	20.9% (1위)	21.4% (1위)	17.7% (1위)	18.6% (1위)
	한국	4.5% (4위)	4.6% (4위)	5.2% (4위)	4.5% (4위)
	일본	16.7% (3위)	11.0% (3위)	8.1% (3위)	8.2% (3위)
수입	미국	9.9% (4위)	7.4% (4위)	7.2% (4위)	7.7% (4위)
	한국	10.3% (3위)	11.6% (2위)	9.9% (2위)	10.2% (2위)
	일본	18.4% (1위)	15.2% (1위)	13.3% (1위)	13.0% (1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 안은 수출 및 수입 상대국중 순위

2) 중국의 수출상대국중 전기간의 비중 2위 국가는 홍콩, 수입상대국중 2000년 비중 2위 국가와 나머지 기간의 비중 3위 국가는 대만

3) 수입 비중 순위 산정 과정에서 중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통계는 제외.

- 일본의 최대 수출국과 수입국은 중국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일본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 6.3%에서 2009년 1~9월중 18.9%로 상승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같은 기간 6.4%에서 8.2%로 상승함
- 일본의 수입 측면에서 수입 비중 1위 국가는 중국(22.3%)이며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 비중은 6위(4.0%)에 그치고 있음

<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 >

		2000	2005	2008	2009 1~9
수출	미국	29.7% (1위)	22.6% (1위)	17.5% (1위)	16.1% (2위)
	한국	6.4% (3위)	7.8% (3위)	7.6% (3위)	8.2% (3위)
	중국	6.3% (4위)	13.5% (2위)	16.0% (2위)	18.9% (1위)
수입	미국	19.0% (1위)	12.4% (2위)	10.2% (2위)	10.9% (2위)
	한국	5.4% (3위)	4.7% (6위)	3.9% (6위)	4.0% (6위)
	중국	14.5% (2위)	21.0% (1위)	18.8% (1위)	22.3% (1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 안은 수출 및 수입 상대국중 순위

2) 일본 수출상대국중 2000년 비중 2위 국가는 대만, 수입상대국중 2005~2009년 기간의 비중 3~5위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UAE, 인도네시아 등.

【별첨 2】 한·중·일간 역내 품목별 수출입 규모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국 ⇒ 수입국					
		한⇒중	중⇒한	한⇒일	일⇒한	중⇒일	일⇒중
총수출입	2000	185	128	205	318	551	304
	2007	820	630	264	563	1279	1093
원자재	2000	0	21	7	2	38	0
	2007	1	39	4	3	36	2
경공업제품	2000	36	33	31	10	266	31
	2007	38	96	17	10	385	43
중화학공업제품	2000	144	69	160	297	200	251
	2007	768	457	233	510	725	926
IT제품	2000	37	25	68	94	75	68
	2007	240	139	67	94	306	237
섬유의류	2000	30	23	17	4	204	26
	2007	30	66	6	4	290	30
철강	2000	12	8	13	27	6	21
	2007	30	87	24	75	19	65
화학	2000	68	13	53	56	32	53
	2007	230	60	66	134	115	197
기계장비	2000	12	3	8	56	17	48
	2007	62	33	21	97	88	167
전기전자	2000	43	38	74	135	123	103
	2007	378	219	95	142	414	362
자동차	2000	2	0	2	8	2	14
	2007	31	7	6	20	18	79
선박	2000	0	0	0	1	1	0
	2007	1	2	0	11	1	0
저기술 제품	2000	38	36	35	12	297	34
	2007	43	116	20	15	481	54
중기술 제품	2000	108	43	90	190	126	182
	2007	442	323	148	413	418	665
고기술 제품	2000	37	28	72	112	84	76
	2007	328	151	88	116	328	272

자료: 한국무역협회, WTO, OECD, IMF.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3369-4030)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2009 ^E	2010 ^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8	4.6	4.0	5.2	5.1	2.2	-1.0	3.9	
	최종소비지출 (%)	0.5	1.0	4.6	5.1	5.1	1.6	0.7	3.1	
	민간소비 (%)	-0.4	0.3	4.6	4.7	5.1	0.9	-0.5	2.9	
	총고정자본형성 (%)	4.4	2.1	1.9	3.4	4.2	-1.7	-2.7	4.3	
	건설투자 (%)	8.5	1.3	-0.4	0.5	1.4	-2.1	3.0	3.2	
	설비투자 (%)	-1.5	3.8	5.3	8.2	9.3	-2.0	-12.0	7.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119	282	150	54	59	-64	343	16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50	294	232	161	146	-133	332.6	226
		수출 (억 \$)	1,938	2,538	2,844	3,255	3,715	4,220	3,574.8	3,935.9
		증감률 (%)	(19.3)	(31.0)	(12.0)	(14.4)	(14.1)	(13.6)	(-15.3)	(10.1)
		수입 (억 \$)	1,788	2,245	2,612	3,094	3,568	4,353	3,242.2	3,709.9
		증감률 (%)	(17.6)	(25.5)	(16.4)	(18.4)	(15.3)	(22.0)	(-25.5)	(16.0)
소비자물가 상승률 (%)	3.5	3.6	2.8	2.2	2.5	4.7	2.7	3.0		
실업률 (%)	3.6	3.7	3.7	3.5	3.2	3.2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26.8	33.6	49.4	61.6	68.4	94.3	60	85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92	1,145	1,024	956	929	1,103	1,280	1,15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